

## 1205(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대적 메시지>와 <부활>에 대한 생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안에서 역사하셨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1장).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으며(1:7–10),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펍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1:5–6).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계신 표지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1:3–4).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돌보았으나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했지만,

성도들은 주님께 신실했으며 충성스러웠습니다(2–3장).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펍박받으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vindication)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그 날,

새 몸을 입고 새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날을 바라며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4장, 5:10).

성도들은 <한밤중>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과 성령을 통해 <한낮>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5:4–8).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돈/죽음에 대하여 주의 명령과 임재, 능력으로 반응하며(4:3–12)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5장).

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❶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❷ 한밤중인 세상에서 성령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